

#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유 연희(감신대) 아비가일의 남자들: 사무엘상 25장 다시 읽기 .....	98
이 글은 사무엘상 25장을 페미니즘의 시각과 문학비평으로 새롭게 읽는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남성 등장인물 중심적 해석과 일관성 없는 아비가일의 인물묘사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글은 화자의 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가부장제 문화코드에서 원인을 찾고, 독립적이며 경계선상에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아비가일을 제시한다.	
Yoo, Yani Abigail's Men: Rereading I Samuel 25 .....	98

---

## 아버가일의 남자들: 삼상 25장 다시 읽기

---

유 연희 | 감신대 강사

### 1. 서론

삼상 25장에는 특이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버가일이라는 여자가 설득력 있는 말로 다윗이 살인하려는 계획을 막았다는 이야기이다. 다윗은 아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 다윗의 군대가 먹을 양식을 부탁했고, 나발은 거절을 한다. 다윗은 모욕을 느껴 나발 집안을 치기로 결정한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미모의 아버가일이 등장하여 현란한 말솜씨와 대범함으로 다윗을 설득하여 살육을 막는다. 이후 나발은 곧 병으로 죽고, 아버가일은 다윗과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일견 명백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정치, 성, 이데올로기가 화자의 문학적 기지에 의해 함께 녹아 숨겨져 있다. 진지한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한다. 학자들이 자문자답을 통해 나온 해석은 무척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곧잘 서로 상충하며 사실과 상상, 역사성과 미드 리쉬를 넘나든다. 본 글의 앞부분에서 이러한 해석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삼상 25장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나발, 아버가일, 다윗이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은 해석들이 나발과 아버가일의 입장에서 읽은 해석들보다 훨씬 더 많다. 나발과 아버가일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점이 보일 수 있다. 이 글은 본문을 특히 등장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아버가일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학자들이 간과했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버가일이 총명하고 용감하다고 하는가 하면, 아버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해석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 원인을 화자의 가부장제 문화 코드에서 찾고, 아버가일과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추적하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의 아버가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삼상 25장의 문학 구조

삼상 25장의 내러티브는 발단과 위기(삼상 25: 2-22), 해결(삼상 25: 23-38), 대단원(삼상 25: 39-42) 등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전주곡(사무엘의 죽음 보도)과 후주곡(다윗의 아내들)이 있다.

위기를 도입하는 첫 부분은 광야에 있는 다윗과 젊은이들이 시작하고 마친다. 또한 다윗의 대사가 이 부분을 시작하고 마친다. 두 번에 걸친 다윗의 대사(삼상 25: 5-8, 13)가 가운데에 있는 나발의 대사(삼상 25: 10-11)를 에워싸고 있다. 다윗과 그의 젊은 병사들 열 명이 한 명의 남자, 나발을 에워싸고 있다. 앞부분의 문학 구조는 이 위기 사건에서 나발이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부분(삼상 25: 23-38)에서는 광야에서 아버가일과 다윗의 만남(삼상 25: 23-35)을 통해 위기가 해결된다. 두 사람은 대사를 주고받는데, 아버가일이 여덟 질에 걸쳐 대사를 하고, 다윗은 이어서 네 질에 걸쳐 두 번에 나누어 말을 한다. 이 가운데 아버가일의 설득력 있는 말이 다윗의 노를 거두고 살육 계획을 멈추게 한다. 둘째 부분의 나머지 질반은 갈멜의 집에서 벌어지고, 나발이 아버가일의 보고를 들은 후 “그의 안에서 그의 마음이 죽어”(야무트 리보 베키르보) 몸이 돌같이 굳어 열흘 후에 죽는다고 전한다(삼상 25: 37-38).

셋째 부분(삼상 25: 39-42)은 내러티브의 대단원으로서 광야의 다윗이 나발의 소식을 듣고서 하는 혼잣말(삼상 25: 39)과 아버가일을 자신의 아내

로 삼으려고 전령을 보내는 것과 이에 대한 아비가일의 순응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내러티브는 두 장소를 바쁘게 오가며 벌어진다. 독자의 눈은 갈멜에 있는 나발의 집과 다윗 무리가 있는 광야 사이를 긴박감 속에 오간다. 주목할 것은 두 장소가 상징하는 의미이다. 갈멜은 부유함, 양털 깎기, 풍성한 잔치로 상징되는 안정된 곳이고, 광야는 주거와 음식의 결핍으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곳이다. 이 두 장소는 거리와 내용 면에서 서로 멀리 동떨어져 있다. 나발과 다윗은 마주한 적이 없다. 나발은 그의 대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현 왕조인 사울 편이고, 다윗은 반역을 피하여 도망 중이다. 다윗 또한 나발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듯하다. 나발이 두려웠던 것일까, 다윗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어” 전언을 할 뿐이다(삼상 25: 6).

이 동떨어진 두 장소,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은 갈멜의 부를 광야로 가져가고, 동시에 결국 광야의 다윗이 나발이 살아 있을 때는 직접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를 결혼을 통해 갈멜로 데려다줄 것이다.<sup>1)</sup> 아비가일이 이 연결 역할을 기꺼이 했는지가 이 글이 탐구하는 바이다.

### 3. 삼상 25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

왜 삼상 25장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고, 학자들은 종종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다. 학자들이 나발, 다윗, 아비가일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1) 멋진 다윗 또는 나쁜 다윗

이 내러티브에서 다윗은 나발과 대조되는 현자인가, 아니면 불량배에 가까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내러티브가 다윗을 옹호하는 본문인지, 폄하하는 본문인지도 결정한다. 학자들은 양쪽으로 고루 나뉜다.

#### (1) 멋진 다윗

1) 참조 J. D. Levenson, "I Samuel 25 as Literature and as History," *CBQ* 40 (1978), 11-28 쪽.

다윗이 나발 가문을 살육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먼저 존 케슬러(J. Kessler)는 다윗이 나발에게 반응한 방식을 수치와 명예라는 고대의 범주라는 관점에서 옹호한다.<sup>2)</sup> 곧 환대에 관한 법을 어기고 모욕을 준 나발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윗은 경력에 오점을 남기기 않기 위해 폭력을 절제한다.

와잇램(K. W. Whitelam)은 삼상 25장을 사울 왕국의 도덕적 쇠락이라는 배경에서 본다.<sup>3)</sup>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신탁에 순종하지 않았고 대신 뉘를 파괴했다(15장, 22장). 다윗이 나발 가문을 치지 말라는 아버지가일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 삼상 25장의 핵심이고,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지도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사건에서 한 수 배웠다고 본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준 사건들이 현 본문의 바로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삼상 24장과 26장)와 연관짓는다. 카일 맥카터(P. K. McCarter)는 삼상 25장에서 다윗이 외부의 위협에서 구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구해진 것, 곧 살인을 하게 되면 생기는 위험스런 결과로부터 구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sup> 그래서 삼상 25장의 목적은 미래의 왕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리타트(P. J. Leithart) 역시 나발 사건을 통해 다윗은 “주님이 바보와 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신다는 것을” 배웠다고 본다.<sup>5)</sup> 이 교훈은 삼상 26장에서 사울을 대하면서 다윗이 놀라운 자제심을 보였을 때 드러났고, 삼상 26장 10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25장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2) 나쁜 다윗

1970년대 중반에 레벤슨(J. D. Levenson)은 갈렙 가문 출신이 아닌 다윗이 어떻게 갈렙 가문 유산인 헤브론에 입성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대답을

2) J. Kessler, "Sexuality and Politics: The Motif of the Displaced Husband in the Books of Samuel," *CBQ* 62.3 (2000), 413쪽.

3) K. W. Whitelam, "The Defense of David," *JSOT* 29 (1984), 71-73쪽.

4) P. K. McCarter, "The Apology of David," *JBL* 99 (1980), 493쪽.

5) P. J. Leithart, "David's Threat to Nabal: How a Little Vulgarity Got the Point Across," *Bible Review* 18.5 (2002), 59쪽.

삼상 25장이 준다고 하면서 도발적인 해석을 내놓았다.<sup>6)</sup> 곧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데 아버가일과의 결혼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성서가 여전히 아버가일을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삼상 27: 3; 30: 5; 삼하 2: 2; 3: 3)는 점을 설명해 준다. 다윗이 갈렙 사람 나발의 후계자이자 뛰어난 여자인 아버가일의 남편이라면 헤브론에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아버가일에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라는 설명이 여전히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레벤슨의 견해에 반대하여, 다윗이 아버가일의 미모와 기지에 반해서 결혼한 것이지, 처음부터 여자를 노리고 나발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sup>7)</sup> 그러나 나단의 신탁(삼하 12: 7-8, 특히 “내가 네 주인의 집과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었다...”) 때문인지, 레벤슨처럼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해킷(J. A. Hackett)과 스톤(K. Stone)은 다윗과 아버가일과의 결혼을 성, 젠더, 특권과 힘의 상징과 과시로서 적의 아내를 취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왕의 아내들과 첩들은 정치적 커넥션과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왕위 찬탈자들은 종종 왕의 여자들을 취하려 했다(삼하 15 - 19장의 압살롬, 삼하 3장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대화 참조). 그렇다면 나발은 다윗의 적이었고 헤브론과 아버가일은 전리품으로 다윗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이 학자들은 레벤슨을 따라 다윗이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을 사울 생전에 빼앗아 적 사울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sup>8)</sup>

비들(M. Biddle)은 삼상 25장을 창세기의 조상 이야기들과 더불어 읽으면서, 삼상 25장의 화자는 다윗을 복합적이고 아이러니하고 거의 풍자적으

6) J. D. Levenson, “1 Samuel 25 as Literature and as Histor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0 (1978), 11-28, 특히 25쪽이하. 레벤슨에 의하면, 다윗은 헤브론에 입성할 때 한 팔에는 아버가일을 다른 팔에는 아히노암을 끼고 입성했다. 둘 다 유력자의 과거 아내들이었다. 나단의 신탁(삼하 12: 8) 이 암시하듯이, 다윗은 사울이 아직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헤브론에서 5년 반 동안 즉위했다는 뜻이다(27쪽). 레벤슨은 바룩 헬퍼와 함께 다시 이 제안을 다듬어 썼다. J. D. Levenson/B. Halpern, “The Political Import of David’s Marria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4 (1980), 507-518쪽.

7) 볼드윈은 레벤슨의 견해에 반대한다. J. G. Baldwin, *1 and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152쪽.

8) J. A. Hackett, “1 and 2 Samuel,” C. A. Newsom/S. H. Ringe(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92쪽; K. Stone, “1 and 2 Samuel,” K. Stone(ed.), *Queer Commentary and the Hebrew Bible*,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8-212쪽.

로 묘사하기 위해 창세기 내러티브에 나오는 요소들을 썼다고 본다.<sup>9)</sup> 비둘에게는 삼상 25장에서 탐욕스럽고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다윗이 보인다. 그래서 본문을 단순히 다윗의 도피 기간에 있었던 다윗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친 다윗적인 글이라고 볼 수 없다. 화자는 다윗의 단점들을 잘 알고 문학적 기술로 그것을 묘사한다. 그래서 삼상 25장 이야기는 삼상 24장과 삼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이야기를 약화시키고 해체한다. 다윗은 요압과 같은 주변인을 살인청부업자로 써서 자신의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게 했는데(삼하 3 - 4장, 아브넬, 이스보셋 등 제거), 삼상 25장이 이것을 예시했다는 것이다.

## 2) 유력자 나발 또는 바보 나발

### (1) 유력자 나발

먼저 나발은 “위대한 사람”이다. 화자는 삼상 25장 2절에서 나발을 갈렐의 갑부라고 소개하면서, “하이쉬 가들 메오드”라고 말한다.<sup>10)</sup> 이 말은 “그는 매우 위대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많은 번역 성서들이 “그는 매우 부유했다”라고 번역한 것은 문맥과 편견의 영향이 크다.<sup>11)</sup> 당시에 재산과 권력이 분리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나발은 부유한 만큼 지역 사회에서 힘과 지위가 있었을 것이다.

일찍이 레벤슨과 헬퍼(B. Halpern)은 나발이 갈렐 가문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sup>12)</sup> 나발이 그 지역에서 사울의 대표자였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접근할 때 나발의 지위를 잘 알고서 접근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sup>13)</sup> 실제로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이 나발에게 의존해 있다는 듯이 넌지시 비춘다. 2인칭을 써서 “당신의 눈”, “당신의 손”, “당신의

9) M. Biddle, “Ancestral Motifs in 1 Samuel 25: Intertextuality and Characterization,” *JBL* 121.4 (2002), 617-638, 특히 635, 637쪽 이하.

10) 이 표현은 모세(출 11: 3), 바르실래(삼하 19: 32-33), 나아만(왕하 5: 5, 9), 옴(1: 3)에게 쓰였다. 이 중 다윗이 암살됨을 피해 도망할 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준 바르실래만이 물질과 관련하여 쓰였다. J. Lozovyy, *Saul, Doeg, Nabal, and the “Son of Jesse”*: *Readings in 1 Samuel 16-25*, (New York: T & T Clark, 2009), 55쪽.

11) 일부 번역성서는 부자보다는 유력자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KJV, JPSV: “and the man was very great”; Geneva Bible: “and the man was exceedingly mighty.”

12) Levenson, *윗글*, 24-28; Levenson and Halpern, *윗글*, 507-18쪽.

13) Biddle, *윗글*, 623쪽; 로조비 또한 나발이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유력자였고, 사울과 나발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한다. Lozovyy, *윗글*, 83쪽.

종”, 심지어 본인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나발의 선심에 호소한다. 다윗이 예의를 갖추어 말을 시작하고(삼상 25: 6), 겸손하게 마치는(삼상 25: 8) 모습은 나발의 힘과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맥켄지(St. L. McKenzie)가 볼 때 나발로서는 재산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자들을 막는 것이 당연했다.<sup>15)</sup> 그리고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요구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발이 악인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악인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나발을 나쁘게 인물 묘사를 한 것과 아버가일이 남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나발의 종이 평가한 것은 모두 나발에 대한 음모요, 신빙성이 없다.<sup>16)</sup>

이 해석에 의하면 나발은 바보도 나쁜 사람도 아니다. 실제로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한 대답은 나발의 한 유일한 대사이자 나발의 정치적 입장과 말솜씨를 잘 보여준다.

“누구나 다윗이, 그리고-누구나 이새의-아들이?  
요즈음에 많다 종들이 도망치는 각기 으로부터-주인.  
그리고-내가-취해서 내-떡과 내-물과 내 고기를 내가-잡은 내-양털-꾸  
는-자들을-위하여  
그리고-내가-주겠느냐 자들에게 못하는 내가-알지 어디서 왔는지도 그  
들이?”(삼상 25: 10-11)

나발은 놀변이 아니다. 짧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단호함을 표현한다. 나발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먼저 던진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는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다. 나발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입장 정리가 끝난 상태임을 드러낸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이고, 조롱 조이다.<sup>17)</sup> 둘째 행이 그 평가를 결정

14) 그런 의미에서 개역개정에서 다윗이 나발과 아버가일에게 마치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처럼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새번역에서는 모든 등장인물이 존대어를 쓴다.

15) St. L. McKenzie, *King David: A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7쪽. Lozovyy, 윗글, 21쪽에서 증인.

16) D. Gunn, *The Fate of King Saul: An Interpretation of a Biblical Story*, (Sheffield: JSOT, 1989), 98-102쪽. 건은 나발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길을 막는 역할이라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고 본다.

17) Lozovyy, 윗글, 123쪽. 성서에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17번 나온다. 삼상에 8번(삼상 20: 27, 30, 31; 22: 7, 8, 13; 22: 9; 25: 10), 삼하에 두 번(삼하 23: 1) 나온다. 사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새의 아들, 곧 시골 목동 출신의 다윗이 주인 사울 아래 있으면서 세력을 키웠고,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꾀하고 있다. 나발은 사울 쪽이고, 그 입장도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고 평이한 표현을 쓸 수 있었지만, 나발은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더라.”고 수사학적 기지를 발휘하여 남의 얘기하듯 하면서 다윗을 꼬집고 있다. 말을 잘하는 것은 히브리 지혜의 범주에 속한다. 모든 독자들이 아비가일의 대사(삼상 25: 24-31)에서 설득력과 지혜를 보는 반면, 나발의 대사에서는 그의 말솜씨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부부가 화술 면에서 서로 닮았다.

나발은 또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다. 빵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다윗과 그 무리에게 줄 수 없다고 결정한다. 나발의 표현 속에서 다윗의 지위는 다시 그들 중 하나로 전락된다. 여기서 나발은 네 개의 동사(취하다, 도살하다, 주다, 알다)를 1인칭으로 사용하고, 명사 어미에도 “나의”를 네 번 더 넣어 “나”를 총 여덟 번이나 강조한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어서 다윗이 말할 때처럼 존경과 겸손 내지는 비굴함을 담아 말할 필요가 없다. 나발은 다윗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발의 양떼를 다윗이 지켜주었다는 주장(삼상 25: 15-16, 21에서 익명의 종과 다윗의 말)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발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나발이 다윗에게 양떼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발은 부호요, 종도 많이 있었는데, 싫어하는 다윗에게 왜 양떼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는가? 설사 다윗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나발은 전혀 채무감이 없다.<sup>18)</sup> 흥미로운 것은 아비가일 또한 이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선행(?)을 알고 있었다면, 다윗에게 저자세로 나가는 입장이므로, 다윗에게 말할 때 그 사실을 포함하여 다윗을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했을 것이다.

무엘서에서 한번(삼하 23: 1, 다윗의 노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였다.

18) 비둘은 나발이 다윗에게 빚진 것이 없고, 다윗의 보호를 바라고 계약을 맺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나발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 다윗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iddle, 윗글, 637쪽.

## (2) 바보 나발

화자는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듯하다. 화자는 나발을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다. 화자는 나발이 부자라고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삼상 25: 2), 일부 독자들은 나발의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그의 부를 묘사한 것이 나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sup>19)</sup> 이것은 화자가 (다윗처럼) 나발의 부에 먼저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자는 서두에서 나발을 노골적으로 “완고하고 악하다”고 평가하고, 중간에 익명의 종을 통해 나발을 “비열한 사람”(벤 벨리야알)이라고 평가하고(삼상 25: 17), 다시 결정적으로 아버가일을 통해 “비열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한다(삼상 25: 25).

우리말로 보통 “바보”라고 번역되는 나발은 지적인 측면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서의 다른 곳에서 나발은 대식가(잠 30: 22), 축적하는 사람(렘 17: 11), 무신론자(시 14: 1=53: 1),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사 32: 6) 등을 가리킨다.<sup>20)</sup> 그렇다면 우리말에서는 “바보”라는 단어보다 “못된 사람”이 더 정확할 것이다.

화자는 또한 여러 가지 단어와 어휘의 포석을 통해 나발을 폄하한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고, 어리석음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כָּבֹל שְׁמוֹ וְהִבְלָה עִמּוֹ**) 나발 웨모 우네발라 이모, 삼상 25: 25)에는 동일 어근 나발과 네벨라의 말 놀이와 웨모와 이모라는 각운이 들어 있다. 또한 다윗이 나발 측 남자들을 아침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원문에서 문자적으로 “벽에 오줌 누는 자들”(**מַשְׁתֵּיין בְּקִיר**) 마쉬틴 베키르, 삼상 25: 22, 34)이다. 이 표현 자체가 비하적인 데다가, 뒤에 나오는 구절의 뉘앙스가 더해져 더욱 비하적으로 된다. 아침에 아버가일이 나발에게 말할 때는 “포도주가 나발에게서 나가고 있을 때”(**כִּשְׁמַת הַיַּיִן מִנָּבֶל**) 베쨌트 하야인 미나발, 삼상 25: 37)였다. 리타트는 이 구절을 나발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풀다.<sup>21)</sup> 나발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인 네벨과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다. 네벨은 동물의

19) 브루거만은 나발의 이름보다 그가 큰 부자라는 소개가 먼저 나오는(2절) 이유가 “나발의 소유가 그의 인격보다 우선하였다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재산으로 인한 방탕으로, 재산을 즐기는 쾌락 속에서 죽었다.”고 하며 나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267쪽.

20) 참조. Wolfgang M. W. Roth, “NBL,” VT (10 (1960), 394-409쪽.

21) Leithart, 윗글 21쪽.

방광으로 만든다. 곧, 아침에 나발은 방광을 비우고 있었다. 다윗이 죽이려고 버린 “남자들”의 모습을 나발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나발은 “몸이 돌처럼” 된다. 폴진(R. Polzin)에게 이 돌은 나발이 “하나님의 물매 구멍에 맞춘 돌이 된” 양상이다.<sup>22)</sup> 이 모든 어휘와 이미지를 화자가 숨겨놓은 것인지, 현대의 독자들이 열성껏 찾아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발의 이미지에 불리하다.<sup>23)</sup>

보일(M. O. Boyle)은 나발이 도망자요, 체류자인 다윗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음식을 주지 않은 냉대의 죄를 범했다고 본다. 그래서 나발이 돌이 된 것은 신체적으로 굳은 것이 아니라 환대의 법에 굳은 것, 곧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준다.<sup>24)</sup> 나발의 “마음이 죽은” 것은 재물이 아까워서 충격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25)</sup>

### 3) 구원자 아비가일 또는 기회주의자 아비가일

#### (1) 구원자 아비가일

화자는 독자로 하여금 내러티브에서 아비가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화자가 다윗 편을 들고 있다면, 아비가일을 좋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바흐(A. Bach)는 아비가일이 자신의 내러티브의 중심이고, 모든 크고 작은 등장인물이 그녀와 연결된다고 관찰한다.<sup>26)</sup> 아비가일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줄거리에서 벗어나 총명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그녀는

22) R.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 1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211-12쪽. 골리앗을 물매로 친 다윗(삼상 17장) 참조.

23) 필리스 트리블은 수사학의 기교들이 화자가 의도한 것도 있고,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독자가 찾아낸 것도 있다고 본다. 「수사비평: 역사, 방법론, 요나서」(유 연희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329-33쪽. 원제는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4).

24) M. O. Boyle, “The Law of the Heart: The Death of a Fool (1 Samuel 25),” *JBL* 120/3 (2001), 401-27쪽.

25) Levenson, *윗글*, 17쪽.

26) A. Bach, “The Pleasure of Her Text,”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43 (1989), 41-58쪽. 비둘도 이 내러티브의 목적이 “탐욕스럽게 보내고 취하는 자”(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주인공으로서의 아비가일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Biddle, *윗글*, 634-35쪽; 그러나 앤토니 캠벨은 이 이야기가 아비가일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게릴라 대장, 보호자, 복수자, 자애로운 무법자, 왕이 될 사람, 남편으로서 다윗이 지배적인 인물이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라고 본다. A. F. Campbell, *1 Samu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03), 257-58쪽.

다윗에게 음식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형태로 다윗이 선택받은 영도자라고 선포한다. 그녀는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행동과 예언으로 구원자 역할을 한다. 귀족 지주의 마나님으로서 아비가일은 일을 주관하고 편안하게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하는 어머니 같은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의 때를 알고 기회를 알며, 안전한 집을 나와 남편의 적을 대면한다. 많은 학자들이 아비가일의 길고(8개 절) 설득력 있는 대사가 내러티브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수사학적 걸작이라고 본다.<sup>27)</sup> 아비가일은 자신과 남편을 다윗 앞에서 비하시키는 저자세로 일관한다. 그녀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간 부분에서 용서를 청하고, 끝에서는 후일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로 마친다. 그 사이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예물이 동원될 뿐 아니라, “생명”을 6번(삼상 25: 26, 29에서 **חַיִּים** 하임 3번, 삼상 25: 29에서 **חַיִּים** 네페쉬 3번) 들먹이고, 야훼가 7번 동원된다(삼상 25: 26, 26, 28, 28, 29, 30, 31). 또한 다윗을 “내 주”라고 말끝마다 14번(삼상 25: 24, 24, 25, 26, 26, 27, 27, 28, 28, 29, 30, 31, 31, 31)이나 높여 부르고, 자신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6번(삼상 25: 24, 24, 25, 28, 31에서 **אֲנִי אִמָּתְךָ** 아마트카 5번, 삼상 25: 27에서 **אֲנִי אִמָּתְךָ** 쉬프하트카 1번)이나 낮추어 부른다. 아비가일은 야훼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며 아부의 극치를 보인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예언자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 다윗은 왕답게 구는 편이 낫다. 그것은 곧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제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다. 과연 아비가일의 한 마디로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 구원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잠재적인 나쁜 경력으로부터 구했고, 남편과 가산을 구했다.

27) 엘렌 밴 볼드는 25장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이고, 그 열쇠는 아비가일의 대사가 보여준다고 여긴다. E. van Wolde, “A Leader Led by a Lady: David and Abigail in I Samuel 25,” *ZAW* 114.3 (2002), 355-75쪽. 라널드 하이먼은 아비가일을 유다(창 44)와 후새와 비교하며 이들이 가진 설득의 힘에서 다섯 가지 공통 요소를 찾는다. 합리적인 계획 제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게 하려고 문제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기, 현실을 인정하기,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등이다. R. T. Hyman, “Power of Persuasion: Judah, Abigail, and Hushai,” *Jewish Bible Quarterly* 23.1 (1995), 9-16쪽.

## 2) 기회주의자 아비가일

아비가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화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에 게서 하자를 찾는 날카로운 독자들은 화자의 복병이다. 먼저 가시엘(M. Garsiel)은 아비가일의 설득력을 ‘남자의 본성을 아는’ 것으로 해석하여 남자들을 조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sup>28)</sup>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목적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가 나발과 다윗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도 남편 몰래 한 것이므로 나발과의 결혼에 대한 불성실로 이해된다.

맥켄지의 시각으로는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택하신 통치자, 곧 다윗의 날개 아래 있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sup>29)</sup> 카마이클(C. M. Carmichael)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조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녀이다. 그는 아비가일이 나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의자라고 본다. 아비가일이 아니고는 나발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30)</sup> 헬렌 또한 아비가일에게 같은 혐의를 둔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가기 위해서 남편 나발을 죽인 것인지를 물으며 나발을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아비가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아비가일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정황적 근거조차 심하게 불충분하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재산을 허락 없이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 앞에서 남편을 폄하했다고 독자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sup>32)</sup> 특히 아비가일이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삼상 25: 26)라고 말했을 때는 아예 남편이 죽기를 바란 것 같다고 한다. 밧세바는 우리야가 죽은 후에 애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반해(삼하 11: 26-27),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자마자 벌써 좋다고 다윗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이다. 화자는

28) M. Garsiel, “Wit, Words, and a Woman: 1 Samuel 25,” Y. T. Radday/A. Brenner(ed.), *On Humour and the Comic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Almond, 1990), 168, 163, 165 쪽. Lozovyy, 윗글, 20쪽에서 중인.

29) 맥켄지는 다윗 또한 아비가일과 결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McKenzie, 윗글, 101쪽. Lozovyy, 윗글, 21쪽에서 중인.

30) C. M. Carmichael, *Law and Narrative in the Bible: The Evidence of the Deuteronomic Laws and the Decalogue*, (London: Cornell Univ. Press, 1985), 173쪽.

31) B. Halpern,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2), 77쪽.

32) 장 일선 교수는 대학원 세미나 때 주로 남학생들이 반응이 그러했다고 소개한다. 장 일선, “다윗의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한신논문집』 15집 1권 (1997), 58쪽.

아비가일의 애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독자의 오해를 부른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25장의 등장인물들에 평가를 다양하고도 상반되게 하였고, 여전히 지배적인 독법은 다윗의 입장에서 읽는 방식이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주변 남자들을 고찰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특히 아비가일에 대한 분열된 이미지가 화자의 일관성 없는 인물 묘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아비가일의 시각에서 나발과 다윗을 보기로 한다.

### 3. 아비가일의 남자들

나발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묘사는 일관성이 있는데 반해, 아비가일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아비가일은 두 남자와 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화자의 목적과 관심이 아비가일의 인생과 운명을 묘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내러티브를 아비가일의 시각에서 읽는 것을 돕는다. 우리는 아비가일과 나발,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느 쪽이 진정 환상의 키편일지, 각각 집과 광야로 상징되는 세계 속에서 아비가일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집에서: 아비가일과 나발

아비가일은 '집'으로 상징되는 갈멜에서 남편과 종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보이고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고 명령을 내리며 일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만나러 가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동사 4개의 주어이고, 다윗과 만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동사 3개의 주어이다. 선물로 준비할 항목을 정하는 것(삼상 25: 18), 종들을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이 뒤에 따라가기로 하는 것(29절),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삼상 25: 19, 36)과 말하는 것(삼상 25: 37)에서 아비가일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아비가일과 나발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했는지 알기 어렵다. 화자가 두 사람의 성품을 매우 다르게 직접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둘이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고, 아비가일이 진정으로 나발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본다.<sup>33)</sup> 그렇다고 해서 이 부

부사이의 관계가 나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의 관계를 옹호하는 몇 가지 실마리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화자가 맨 처음에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서로 가까이 있다.

<b>A</b>	<b>B</b>
이름은 그-사람의 나발이고 <b>a      b      c</b>	이름은 그의-아내의 아비가일이었다 <b>a'      b'      c'</b>
<b>A'</b>	<b>B'</b>
그-여자는 좋았고-통찰이 그리고-아름 다웠다 용모가	그-남자는 거칠고 그리고-악하고 행실 이 그리고-그는 갈렙-사람이었다(삼상 25: 3)

부부는 대구 속에서 이름이 소개되고(abc/a'b'c'), 둘의 이름에는 두 개의 자음이 공통으로 들어있다(ㄱ, ㄴ). 두 명의 등장인물 소개는 나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중간에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나발에 대한 소개로 마친다. 곧 나발이 아비가일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이 교차 대구법(ABB'A', chiasmatic structure)이 부부사이가 좋았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둘은 이 문학 구조 속에서 서로 가장 가깝게 놓여 있다. 실제로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한 후에도 나발과 나누어지지 않는다. 아비가일은 흥미롭게도 끝까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로 소개된다(삼상 27: 3; 30: 5; 삼하 2: 2; 3: 3). 다윗이 미갈과 발디엘을 억지로 떼어놓은 일(삼하 3: 15-17)이 나발과 아비가일에게서도 비슷한 혐의를 상상하게 한다.

둘째로, 두 사람은 말솜씨와 결단력에서 닮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부부는 각기 언변이 좋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닮았다. 다윗이 음식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선물을 주러 갈 때와 다녀온 직후에 왜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집에서 아비가일은 말수가 적지만 판단과 행동으로 더 크게 말하고 확

33)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268쪽; A. O. Bellis, *Helpmates, Harlots, Heroes: Women's Stories in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148쪽.

신을 드러낸다. 광야에서는 말이 많으면서도 굴욕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아비가일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서 채물(음식)을 다윗 군대에 갖다준 모습은 성서에서 약자가 생존을 위해서 강자에게 속임수를 쓰는 흔한 방식이지만,<sup>34)</sup> 화자는 아비가일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아비가일의 독자적인 모습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비가일이 굴욕적이었거나 통제 당했을 것이라는 독자의 상상을 막는다. 그랬다면 스스로 아무 것도 못할 만큼 공포와 주체성 결여를 내재화했을 것이다. 나발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다. 신혼인지, 오랜 부부라도 자녀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녀의 유무를 언급하는 것은 성서 화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잘 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하는(대하지 않는) 방식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비가일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것은 상황 판단과 정치적 견해가 그와 다른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발은 부자로서 사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다윗 무리가 공격해 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의 청을 거절했는지도 모른다.<sup>35)</sup>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보다 다윗의 병력과 다윗의 행동 방식을 더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아비가일은 정치 판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발의 대사가 암시하듯이 나발은 사울 지지자였다. 사울 치하에서 부를 형성한 사람들은 충성과 신의가 사울 왕조에 있었을 것이다. 이 왕조를 흔들고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자들, 특히 사울의 왕자가 아니면서 권좌를 넘보는 다윗과 같은 자들은 모두 반역자였다. 나발은 사울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정치 판도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나발이 사울에게 끝까지 동조했다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부상하는 실세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아비가일은 나발과 언변과 결단력에서 비슷했지만 상황과 정치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그래서 사고와 행동 면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셋째로, 화자나 독자,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어찌 생각하든 간에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성실하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한다. 남편의

34) 참조. S. Niditch, *Underdogs and Tricksters: A Prelude to Biblical Folklore*, (Cambridge: Harper & Row, 1987).

35)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 창 14: 14 참조.

36) Lozovyy, *읽글*, 158쪽.

잘못을 떠맡고, 스스로를 다윗의 '여종'이라고 부르며 비굴함을 감수하고, 다윗을 차기 대권주자라고 추켜세우며 그의 폭력을 막는다.

## 2) 광야에서: 아버가일과 다윗

아버가일은 '밖'으로 상징되는 광야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대와 함께 있을 때 저자세와 자기비하의 모습, 두려움, 위협, 불안전을 보이고 정체성이 남에 의해 규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윗과 만날 때 아버가일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땅까지 낮아진다. 나귀에서 몸을 던져(לָפַת תִּפֹּל/떨어져) 얼굴을 땅에 향하고(삼상 25: 23) 다윗의 발까지 '떨어지고'(לָפַת תִּפֹּל, 삼상 25: 24), 대사에서도 한없이 낮아진다.

다윗과의 관계도 그다지 로맨틱하지 않다. 그런데 집단 살육을 앞두고 전개되는 이 무서운 이야기에서 놀랍게도 아버가일과 다윗 사이의 로맨스를 보는 해석들이 은근히 많다.<sup>37)</sup> 아버가일이 대사의 끝에서 "기억해-주세요 당신의-여종을"(자카르타 에트-아마테카, 삼상 25: 31)이라고 말한 것과 소위 다윗의 청혼에 아버가일이 순응한 것(삼상 25: 42)이 그러한 해석을 불러일으킨 듯하다.<sup>38)</sup> 우리는 이 "로맨스"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버가일의 눈에 다윗은 누구였을까? 다윗이 곧 공격해올 거라는 종의 말(삼상 25: 14-17)에 동의하여 급히 선물을 싸들고 집을 나선 아버가일의 태도는,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가만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곧 관대함, 평화,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사람ियो, 보복과 폭력을 행사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광야에 나서 보니 다윗이 군대를

37) 아델 벌린은 사무엘상 25장이 아름다운 여자 아버가일이 악한 도깨비에서 풀려나 멋진 왕자님과 결혼한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본다. A.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31쪽. 피터 애크로이드에 의하면, 25장은 생생하게 로맨틱한 이야기로서 다윗이 어떻게 아름다운 아버가일과 결혼하게 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P. R. Ackroyd, *1 Samuel*,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Univ. Press, 1971), 195쪽. 데이빗 추무라는 25장에 "다윗이 아버가일과 결혼하다"는 제목을 붙이고는 다윗이 이 결혼으로 헤브론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옹호한다. D. T.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576쪽; 레벤슨은 아버가일이 야곱처럼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은 다윗과의 로맨틱한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신을 제공했다고 본다. 윌글, 18-19쪽.

38) 건은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의 힘을 저항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말한다. Gunn, 윌글, 100쪽.

거느리고 갈멜 쪽으로 오고 있었고, 아버가일로서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버가일은 이런 남자를 어떻게 다룰지 안다. 아버가일은 다윗이 현재 도피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그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왕좌에 야심이 있으며, 음식 정도가 아니라 정치자금과 지지 배경이 필요하다. 이런 남자에게는 자신을 사정없이 낮춤으로써 상대의 경계를 풀고, 원하는 것을 주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과 떼지어 지내고, 주거와 생계는 물론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아버가일이 뭐가 좋다고 “급히” 갔겠는가?(삼상 25: 42) 사실 다윗의 “청혼”도 명령이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 “청혼”이라는 표현은 실은 가부장제의 옷을 입고 있어서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려고”(מִתְחַוָּה לָהּ 레카호타) 하는 것이다. 거의 보쌌이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삼상 25장 39절 끝에서 “그리고-보냈다 다윗은 그리고-말했다 아버가일에게 그녀를-취하려고 그에게 아내로.”라는 표현이다. “그가-아버가일에게 말했다”(וַיֹּאמֶר אֲבִיגַיִל יְדָבָרָה בְּאָזְנוֹתַי 에다베르 바이비가일)에서 전치사 베를 “-에 반대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법 상 가능하다.<sup>39)</sup> “아버가일에게-반대해서”라고 번역한다면 뜻밖에도 문법은 이 결혼이 아버가일의 뜻에 반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로맨스”가 사라진다.

결국 다윗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 이 이야기는 아버가일에게 해피엔딩이 아닌 듯하다.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만이 결말에서 보이는 아버가일의 수동성에 관심을 기울인다.<sup>40)</sup> 나발의 집에 있을 때는 활발하고 말이 많던 아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후 다시는 대사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아버가일이 나발보다 다윗과 더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아버가일은 광야에서부터 더 이상 아버가일 같지가 않다.<sup>41)</sup> 아버가일의 침묵은 화자가 침묵시키는 것이기도 하

39) BDB는 이 구절을 “청혼하다”(propose for)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디베르 베...”는 “...를 반대해서 말하다”는 용법으로도 쓰인다. 민 12: 1, 8; 욕 19: 18; 시 50: 20; 78: 19 참조. BDB, 181쪽.

40) Bach, 윗글, 55쪽; Bellis, 윗글, 148쪽.

41) 레벤슨은 아버가일과 나발은 “구제불능으로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고 한다. 윗글, 16쪽; 장일선은 다윗과의 결혼은 아버가일이 현명해서 받는 보상이요, 둘은 함께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다고 한다. “다윗의 아내 미갈과 아버가일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60, 62. 브루거만은 두 사람이 “아름답다”(야파, 25: 3; 16: 12)고 공통으로 묘사되었고 한 유형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윗글, 268쪽.

지만 아버가일이 침묵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가일이 다윗에게 진정 속했는지 의심스럽다.

내러티브의 끝에서 아버가일은 가장 낮아진다. 다윗에게 인사할 때 발치까지 낮아진 데서(삼상 25: 23-24) 그치지 않고 다윗의 말을 전하러 온 다윗의 종들에게도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하며, “당신의-여종은(קַיִלָּה 아마트카) 종(קַיִלָּה 쉬프하트카)이-됩니다. 씻길 발들을 종들의 내-주의”하고 말한다(삼상 25: 41). 아버가일은 다윗의 종이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자칭한다. 특히 “발”이 완곡 어법으로 성기를 나타내고, “발을 씻긴다”는 표현이 성적인 초대를 뜻한다면, 전령들의 발을 씻긴다고 했으니 아버가일은 여기서 심하게 낮아진 것이다.<sup>42)</sup> 이것은 갈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나발이 없는 갈멜,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곳은 이제 광야이다. 이 낮은 갈멜, 새로운 광야에서 아버가일은 낮은 사람이 되었다.

아버가일은 본문에서 두 번 나귀를 타고 여정에 있다. 첫 번째는 갈멜에서 광야로 낮은 다윗을 만나러 갈 때, 두 번째는 다시 갈멜에서 광야로 가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될 다윗을 만나러 갈 때이다. 첫 여정에서 아버가일은 남편 나발을 살리고 다윗의 폭력을 막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둘째 여정에 오를 때는 그토록 살리려던 나발이 결국 죽고 없는 상태로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길에서 아버가일은 혼자이다. 첫 여정에서 아버가일은 선물과 소년들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혼자 간다(삼상 25: 19-20). 아내로서 다윗에게 갈 때에 아버가일은 단출하다. 함께 가는 다윗 하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서두에서 그 많던 가축이나 종들, 양털 깎는 수확의 풍부함과 잔치의 풍부함과는 대조적이다. 어쨌든 아버가일은 새 여정에 오르고 지금은 경계선상에 있다.

#### 4. 결론: 경계선상의 아버가일

우리는 본문의 행간을 읽으며 아버가일이 집과 광야에 있을 때, 곧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곧 여성에게 있어서 집과 안전이 연결되고, 밖이 곧 위험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전형을 반영한다. 화자는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부장제 코

42) 삼하 11장 8절에서 다윗은 우리야에게 집에 가서 밧세바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독려하면서 “발을 닦으라.”고 권한다. 성서 몇 군데에서 발이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었다. 룻 3: 4; 왕하 18: 27(케레); 사 7: 20.

드 안에서 아비가일을 묘사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는 인물로 그리며, 그래서 결국 어느 쪽에도 진정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암시한다. “아름답고 총명한”이라는 수식은 화자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긍정적으로 묘사해준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비가일이 단호한 행동, 판단력, 지휘력, 용기, 언변 등 다양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음을 보았다. 독자는 이 여자가 왕위에 올랐더라도 손색이 없는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아비가일은 두 왕조, 두 남자, 두 세력의 경계에서 살아남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총명함과 대범함과 미모를 갖춘 이 여자는 그 모든 자질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넘겨졌다. 아비가일은 우호적인 독자들과 비판적인 독자들 사이에 있다. 아비가일은 잘 생존할 것이다. 새 왕조의 풍파 속에서도, 새 조류의 독법 속에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나 총명함과 대범함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이다.

## 5. 참고문헌

- 장 일신, “다윗의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한신논문집』 제 15집 1권(1997), 35-68쪽.
- Ackroyd, P. R., *1 Samuel*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Univ. Press, 1971).
- Campbell, A. F., *1 Samuel*,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 Bach, A., “The Pleasure of Her Text,”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43 (1989), 41-58쪽.
- Baldwin, J. G., *1 and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 Bellis, A. O., *Helpmates, Harlots, Heroes: Women's Stories in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Berlin, A.,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Biddle, M. E., “Ancestral Motifs in 1 Samuel 25: Intertextuality and Characterization,” *JBL* 121.4 (2002), 617-638쪽.
- Boyle, M. O., “The Law of the Heart: The Death of a Fool (1 Samuel 25),” *JBL* 120/3 (2001), 401-27쪽.

-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 Robinson 옮김), (Oxford: Clarendon Press, 1957).
- Brueggemann, W.,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 Carmichael, C. M., *Law and Narrative in the Bible: The Evidence of the Deuteronomic Laws and the Decalogue*. (London: Cornell Univ. Press, 1985).
- Gunn, D. M., *The Fate of King Saul: An Interpretation of a Biblical Story*, (JSOT Supplement Series 14), (Sheffield: JSOT Press, 1980).
- Hackett, J. A., "1 and 2 Samuel," C. A. Newsom and S. H. Ringe (ed.), *The Women's Bible Commentar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85-95쪽.
- Halpern, B.,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Hyman, R. T., "Power of Persuasion: Judah, Abigail, and Hushai," *JBQ* 23 (1995), 9-16쪽.
- Kessler, J., "Sexuality and Politics: The Motif of the Displaced Husband in the Books of Samuel," *CBQ* 62.3 (2000), 409-423쪽.
- Leithart, P. J., "David's Threat to Nabal: How a Little Vulgarity Got the Point Across," *BR* 18.5 (2002), 18-23, 59쪽.
- Levenson, J. D., "1 Samuel 25 as Literature and as History," *CBQ* 40 (1978), 11-28쪽.
- Levenson, J. D. and B. Halpern., "The Political Import of David's Marriages," *JBL* 99.4 (1980), 507-18쪽.
- Lozovyy, J., *Saul, Doeg, Nabal, and the "Son of Jesse": Readings in 1 Samuel 16-25*, (New York: T & T Clark, 2009).
- McCarter, P. K., "The Apology of David," *JBL* 99 (1980), 489-503쪽.
- Niditch, S., *Underdogs and Tricksters: A Prelude to Biblical Folklore*, (Cambridge: Harper & Row, 1987).
- Polzin, R.,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c History, Part Two: 1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Roth, W. M. W., "NBL," *VT* 10 (1960), 394-409쪽.
- Stone, K., "1 and 2 Samuel," K. Stone(ed.), *Queer Commentary and the Hebrew Bible*,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95-221쪽.
- Trible, P., 「수사비평: 역사, 방법론, 요나서」 (유 연희 옮김), (한국기독교연구회, 2007). 원제는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4).

Tsumura, D. T.,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Van Wolde, E., "A Leader Led by a Lady: David and Abigail in I Samuel 25," *ZAW* 114.3 (2002), 355-375쪽.  
Whitelam, K. W., "The Defense of David." *JSOT* 29 (1984), 71-73쪽.

## 검색어

가부장제 코드  
나발  
다윗  
아비가일  
페미니스트 독법

투고일: 2010년 12월 27일  
심사일: 2010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3일

---

## Abigail's Men: Rereading I Samuel 25

---

**Yani Yoo**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Union University Ph. D.

This essay attempts to read the narrative in 2 Samuel 25 where Abigail, Nabal, and David appear from Abigail's point of view. Prior literature has been reading the narrative mostly from the viewpoints of David and Nabal. Feminist interpretations were able to observe the ambiguous and inconsistent descriptions of Abigail but did not offer clear explanations about it. This essay seeks the answer from the patriarchal codes of the narrator: Images of Abigail, sagacious and acting boldly on the one hand and silent and subservient on the other, have to do with the space concepts of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While discussing the space concept, the essay also argues that contra to general percep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igail and Nabal was not bad and ra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Abigail and David was not good.

The narrative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two spaces, the house in Carmel and wilderness, bridged by Abigail. The house in Carmel symbolizes richness, safety, sheep shearing, and abundant feast; outside the house, wilderness symbolizes lack of safety, shelter, and food. At her house where she has her husband and servants Abigail shows confidence, makes independent judgments, and commands her servants. She is the subject of

seven active verbs when she prepares to go meet David and when she comes back home. Outside the house where she was with David and his soldiers she shows a low profile, self-degradation, fear, and loss of confidence as her identity was defined by others. In fact, when she meets David Abigail is lowered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e ambiguous characterization of Abigail reflects the typical patriarchal code in which the house is connected to safety for and outside the house to lack of safety. Staying in this code the narrator presents Abigail as an inconsistent figure isolated in a men's world.

However, the reader sees Abigail as a survivor at the boundary of two men, two dynasties, and two powers. Abigail will survive despite of ambiguous characterization and the readers' arbitrary readings.

### **Keywords**

Abigail  
David  
feminist reading  
Nabal  
patriarchal code